

8월 24일(월) / 렘 1-3

- **내용요약:** 1장은 유다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이방의 군사력을 더욱 의지하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 멸망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통치 제13년(B.C.627)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패망하던 시드기야 왕(B.C. 597-586) 제 11년(B.C.586)까지 활동하면서, 그 후 애굽으로 끌려가기 까지 약 40년간 범죄로 인한 민족적 패망과 그림에도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예언한다. 예언 활동을 하기 전 하나님의 초월적인 선택과 절대적 후원 약속을 소개하며, 두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맞게 될 열악한 상황과 백성의 죄악상을 12년의 설교를 통해 엄중히 지적하는데 (2-25장) 그중 2장에서 3:5절까지는 그의 첫 번째 설교로 유다 백성의 죄악과 허물이 순전히 자신들 스스로 결행한 것임을 지적한다. 3장에는 유다 백성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배신한 것임을 고발한 첫 번째 설교(2:1-3:5) 및 회개에의 촉구와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하게 될 형벌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이다.
- **질문:**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가?(1장)
-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사역자는 이 사실을 믿고 이해해야 한다(1:19절).

8월 27일(목) / 렘 29-31

- **내용요약:**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한 예레미야와 그 같은 주장을 반대하여 백성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의 충돌을 소개한 28장에 이어 29장에서 70년 후 유다회복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간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소개한다. 수신자는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B.C.605, 597)으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간 자들이다. 바벨론에서 방황치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4-7절),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하신 70년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한다. 30장에는 회복에 대한 서론적 내용으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궁극적 회복, 장차 임할 회복의 날에 맞게 될 기쁨과 자유에 대해 비전(4-11절), 시온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것(12-17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미칠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된다. 31장은 남북왕국을 통털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다 백성들이 본토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됨,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됨, 자녀와 가족이 번성하게 됨을 기록한다.
- **질문:** 예레미야는 포로되어간 자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나?(29장)
- **생각하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

8월 30일(일) / 애 1-5

- **내용요약:** 앞선 예레미야에서 범죄한 유다백성을 향하여 그렇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심판이 성취된(B.C. 586 예루살렘 멸망) 직후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터 위에서 탄식어린 애가(哀歌)를 부르게 된다.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선지자의 탄식을 중심으로 멸망의 적나라한 실상을 소개하고, 멸망당한 예루살렘 백성의 극한 슬픔을 소개한다. 2장은 하나님이 집행하신 심판의 대략을 소개한다. 유다백성에게 미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과 성전예배중단, 예레미야의 탄식,

8월 25일(화) / 렘 4-6

- **내용요약:** 회개에의 촉구와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했던 3장에 이어 4장은 죄를 범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회의 길을 제시하고(1-4절),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면과 사랑의 초청을 거부한 유다백성에게 미칠 재앙이 선포되면(5-18절), 하나님의 목시를 통해 유다에 임할 엄청난 파멸 상을 미리 목격한 바 있는 예레미야가 동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 죄로 인해 멸망해가야 할 동족의 아픈 현실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며 탄식하는 장면(19-31절)을 기록한다.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유다가 처참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를 지적하고(1-9절), 멸망당할 유다가 경협하게 될 심판의 성격을 설명하며(10-1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유다백성의 타락을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의 침공예언(1-8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어리석은 유다의 실상(9-21절) 및 바벨론의 침공으로 맞이하게 될 참상을 적고 있다.
- **질문:**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5:1-9절)
- **생각하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이다.

8월 28일(금) / 렘 32-34

- **내용요약:**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31장) 예레미야는 32장에서 개인적으로 갖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궁극적 회복이라는 약속을 얻게 된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에 항복을 촉구하다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1-5절),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도록 지시받음(6-15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고민하며 기도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경고와 본토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지시받음이 기록된다. 33장은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 그로 인해 기쁨과 풍족함이 넘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풍요로운 전원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 제시하는 내용,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하고도 영원한 보증을 제시하는 장면을 소개한다. 34장에서는 바벨론이 유다 대부분의 성읍을 점령한 후, 최후로 예루살렘 총공세를 취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왕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유다왕국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자신은 눈이 뻘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신다.
- **질문:**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왜 수모와 고초를 당했나?(32장)
- **생각하기:**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아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함을 기록한다.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 유다백성의 참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근거로 절망적인 현실 중에서도 구원을 소망하게 된 선지자의 빛나는 신앙,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 대적의 멸절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호소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 등을 기록하고 있다. 4장은 바벨론에 철저히 침탈당하고만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실상을 소개한다.

8월 26일(수) / 렘 16-18

- **내용요약:** 16장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세 가지 예언행위(豫言行爲), 곧 독신생활(2-4절)과 상갓집 방문금지(5-7절)와 진치집 참석금지(8-9절)를 기록한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제시되었고(10-13, 16-18절), 아울러 회복에의 약속을 적고 있다(14-15, 19-21절). 16장에는 심판과 회복의 이중(二重) 메시지가 명쾌히 선포되고 있다. 17장에는 죄로 인해 유다백성이 포로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예언(1-4절), 백성이 선택해야 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제시(5-11절),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환경은커녕 비난과 박해를 당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안식일을 성수할 것이 촉구되는 장면이 소개된다. 18장부터 20장은 여덟 번째 설교로 18장에는 개인과 나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밝히고 있고(1-12절), 자기 죄를 고집하는 유다백성에게 처참한 심판이 선언되고(13-18절), 지금껏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도리어 심판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19-23절).
- **질문:** 18장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다.

8월 29일(토) / 렘 35-38

- **내용요약:** 34장에서 유다백성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지적했던 예레미야는 35장에서 선민의 반열에 들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레갑 족속이 예를 들어 유다백성의 죄악성을 강조한다. 겐 족속으로도 불려지는(민 10:29절) 레갑 족속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과 인연을 맺은 모세 장인 겐 족속의 일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은 요나단이 납긴 계명을 좇아 지나질 정도로 철저히 성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에까지 호소하며 유다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권면한다. 36장은 여호야김 4년(B.C 605)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를 구술(口述)하며 네라야의 아들 바룩으로 하여금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한 내용을 기록한다. 37장은 바벨론이 마지막 공세를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다. 38장에는 예레미야가 고소당한 후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을 기록한다.
- **질문:** 겐족속은 누구며 예레미야는 왜 그들을 예로들었나?(35장)
- **생각하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가 동족에게 옥에 갇히는 등 고초와 박해를 받았다.

5장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유다의 회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한다.

- **질문:**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내용은?(1장)
- **생각하기:**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미래의 회복과 구원을 확신하여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처지를 '다 감찰하셨다'고 신앙 고백한 것이다(애3:60절). 우리들도 이 같은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절망 중에서도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올 것이다.